

교회소식 (ANNOUNCEMENTS)

세광 가족 모두 성령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 공동의회 공고

일시: 2017 년 1 월 22 일(주) 예배후
장소: 세광교회 본당
안건: 예결산 승인 및 감사 선출

- 2017 세광교회 단기선교

일시: 2017 년 2 월 20 일-24 일 (월-금)
장소: 혼두라스 램피라 지역의 라플로레스 (최문재 선교사)
사역: 의료 및 전도, 어린이 사역
여름의류를 Donation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교육부 광고

Sight and Sound Trip for Sunday School and Youth Group
일시: 3 월 27 일 (토)
입장료: Adult \$85
Children \$50
Kids age(3-12) \$31

2017 년 1 월 안내: 전영자 권사
다음 주 기도: 오영숙 집사/시편 27:1, 4-9
이번 주 친교: 김경화/조현혜 집사
다음 주 친교: 서현숙/최경자 집사

예배안내

- 주일예배: 오후 12 시 본당
- 유년/중고등부: 오후 12 시 1 층 예배실
- 금요기도회: 오후 8 시 본당
- 중고등부 성경공부: 오후 8 시 1 층 예배실
- 토요 새벽기도: 오전 6 시 본당
- 구역예배: 구역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마 5:14)

뉴욕세광교회

Sekwang Korean Presbyterian Church

담임: 이민영 목사 914.874.3606(C) mylee4x@gmail.com

예배/지휘 전도사: 이상민/중고등부 전도사:Edwin Kim

유년부 간사: 안정자/만주자: 윤미경

70 Bedford Road, Pleasantville, NY 10570

www.nysekwang.org

2017 년 표어

“하나님의 뜻을 다(The Whole Counsel of God)” (행 20:27)

주일에배순서

2017 년 1 월 15 일

인도:
이민영 목사

*입례송영 (Opening Hymn) 21 장(통 21 장)

다함께
“다 찬양하여라”

*경배와 찬양 (Worship and Praise)

다함께

*신앙고백 (The Apostles' Creed)

* 찬송 (Hymn) 64 장(통 13 장)

다함께

“기뻐하며 경배하세”

대표기도(Invocation) 시(Psalms) 40:1-11

성창현 집사 찬양(Choir)

“주님” 세광찬양대

봉헌기도

인도자

성경봉독(Scripture Reading) 계(Rev.) 3:14-21

교회를 위하여: 눈물과 감동이 있는 예배 되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성도 개개인의 구원의 확신과 신앙성장, 성령충만을 위하여

새 가족이 쉽고 편하게 적응하도록

구역장들 (목회자의 마음, 성령충만, 삶의 균형, 헌신)

구역예배를 통해 교제가 풍성해 지도록

성경공부, 성경통독, QT, 등을 통해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위해

주일학교 담당 사역자들을 위하여

선교사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순돈호(슬로바키아), 최정희(도미니카),

장영호(GP 본부), 이정석(WEC 본부), 김승훈(베트남), 정명섭(모잠비크)

CSO(미자립교회 지원사역), 이성주(필리핀)

2017. 1. 8. 주일설교 요약

내가 그와 더불어, 그는 나와 더불어 (계 3:14-22)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은 가장 심한 책망입니다. 라오디게아 도시의 물처럼 차지도 덥지도 못해서 온천욕으로도 식용으로도 마땅치 않은 미지근한 신앙태도를 책망하십니다. 입에서 토해내겠다고 하십니다. 세상 부에 만족하며 영적인 가난을 슬퍼하지 않고, 세상의 명예와 위선으로 수치와 죄를 가리려 하고, 분별을 자랑하면서도 믿음의 눈이 없는 신앙생활을 책망하십니다.

그러나 그 책망은 가장 정직한 지적이고 능력있는 분의 권고였습니다. 지적을 위한 지적이 아니라 사랑하는 친구의 책망이었습니다. 또 지적만하고 도와줄 마음이 없거나 능력이 없는 대책없는 지적이 아니라 창조주 근원되신 주님의 권고였습니다. 헛된 부와 위선, 짧은 지혜를 버리고 주님과 교통함에서 얻는 부요함과, 주님이 입혀주시는 의의 옷, 말씀과 성령의 지혜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악하고 미련한 자의 아부보다 친구의 아픈 책망이 우리를 살립니다. 듣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의 부요함은 어디에서 나오니까? 재산입니까? 교회에 사람이 많이 모이고 예산이 늘고 좋은 프로그램들이 활발한 것입니까? 다 좋은 것들이지만 그 안에 영적인 생명, 주님께 대한 사랑과 순종, 예배의 기쁨,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사와 능력이 없다면 말짱 헛것입니다.

우리의 의로움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애써 꾸며낸 나의 행동입니까? 조심스런 처세로 얻은 인정입니까? 권위와 지위에 기대서 얻은 청중입니까?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인정을 받은 속과 겉이 일치하는 진실함이 우리의 의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삶의 경험이 있을수록 사람과 상황을 판단하는 능력이 늘어갑니다. 그러나 주님의 눈으로 사람을 귀하게 보고 모든 상황 속에서 소망을 찾는 믿음의 판단은 세월이 간다고 얻는 게 아니라 오직 주님께 얻어야 합니다. 혹시 우리도 영적으로 가난하고, 지위나 체면을 벗겨버리면 수치스럽고, 내 판단을 넘어설 믿음의 실력이 없는 눈 먼 사람들 아닙니까?

이와 같은 주님의 지적을 듣고 돌아보며 반성하지만 돌이킬 힘이 없다면, 그저 아픈 지적일 뿐이요 그 지적을 오래 견뎌낼 사람은 없습니다. 변명하고 감추고 대들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지적은 어떤 편지에서도 볼 수 없는 따뜻한 격려가 있는 지적입니다. 우리 마음으로, 삶으로 들어오시려고 문을 두드리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음성을 듣고 마음을 굳히지 말고 문을 열면 주께서 우리 마음에, 우리 삶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사십니다. 헛된 부요함인줄 알면서 놓으면 가난해질까봐, 벗으면 수치가 드러날까봐, 이 정도나마 판단하지 않으면 눈 뜨고 당할까봐 차마 세상 지혜를 놓지 못하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친히 부가 되고, 내가 친히 덮어주고, 내가 친히 빛이 되어 인도하겠다.

가장 사랑하는 친구의 정직한 책망, 가장 능력있는 의사의 정확한 진단, 가장 따뜻한 아버지의 격려가 이 편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분은 지금 믿음으로 눈을 열어 마음을 열고 주님이 구주가 되시도록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믿은 사람은 마음을 열고 주재권을 주님께 드려, 나의 가난 대신 주님의 부요함이, 겨우 가린 외식의 옷이 아니라 주님이 입혀주시는 의와 거룩의 옷이,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밝은 빛과 인도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1/22) 설교: 하늘에 열린 문 (계 4:1-11)